

한총련 더이상 학생운동의 주체일 수 없는가?

조사대상 55% '한총련 탈퇴하라' ...총학, 개혁 모습 보일터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석씨의 죽음으로 세상이 시끄러울 즈음, 모 일간지에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던진 질문이다.

지난 96년 8월 연대사태 이후 한총련을 보는, 그리고 학생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 지나칠 정도의 정부 탄압이 사실상 가능하게 되었고 정부는 결국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하여 모든 대학 총학생회에 한총련을 탈퇴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강제적 요구로 많은 대학들이 한총련을 탈퇴하게 되었고 정부가 정한 탈퇴 최종 기한인 지난 7월 31일에는 미탈퇴 대학이 82개에 미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 총학생회의 경우 계속되는 정부의 탈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총련 탈퇴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연명으로 인한 개인 탈퇴의 경우는 많지만 총학생회가 정식으로 탈퇴를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총학생회측이 정부의 요구에 강력하게 맞서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최종 기한이 방학 중이어서 의견 수렴이 어려웠다"고 말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타학교의 경우 이번 사태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투표를 실시하기도 하고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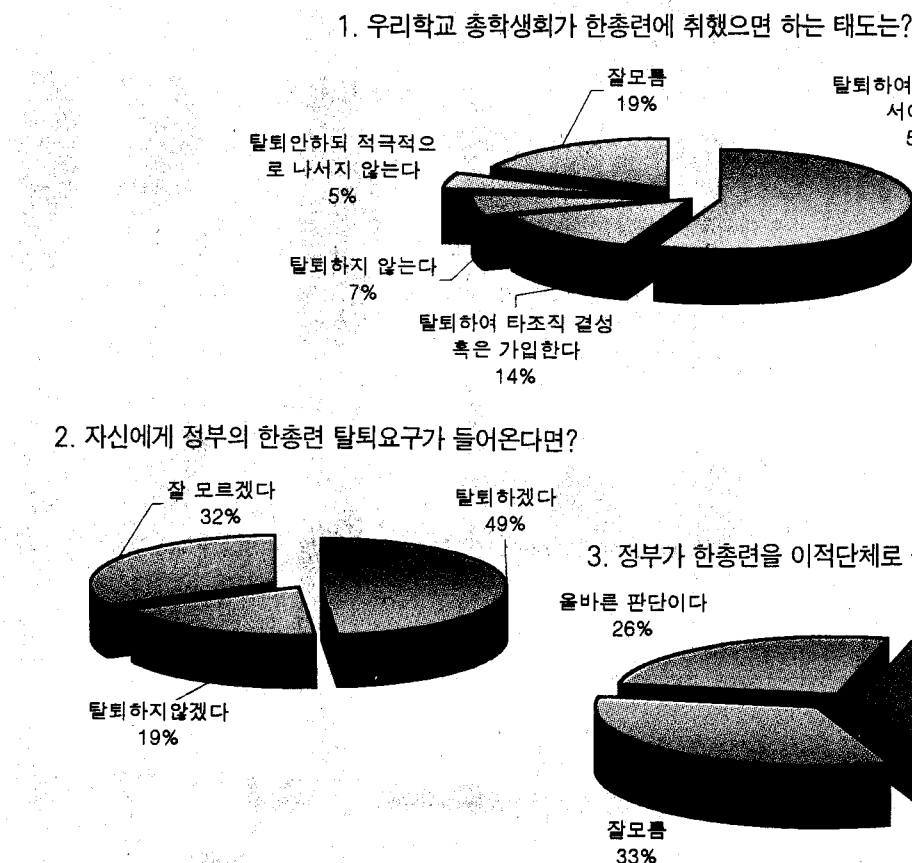
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본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조사 대상의 68.37%가 '타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한 것을 볼 때 이번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취한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정부에서 한총련 탈퇴 요구를 직접 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48.48%의 학생이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학생(41.14%)들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해 한총련 자체에 대한 불신보다는 현재 한총련의 행동에 대한 불신이 깊음을 볼 때 총학생회는 일반 학생들에게 개혁된 모습의 한총련을 보일 수 있는 미연의 가능성이 약간은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총학생회측은 '탈퇴, 비탈퇴에 대한 논의 자체의 불필요성을 느껴 탈퇴 여부와 관련된 의견 수렴의 절차가 없었고 나름대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공감했으나 그 기간이 방학중인 관계로 의견개진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앞으로 한총련에 임하게 될 자세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박정윤(생물4)군은 "한총련을 탈퇴해서 우리학교가 나아가 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 보다는 한총련에 남아



있으면서 현재 한총련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그동안 관성화 된 학생운동의 문제점을 공론화 하여 전체 학생들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 개개인이 주인이 되어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의 한 간부는 "한총련의 오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것은 단체를 포기하지 않는 차원의 것이 아닌 학생운동 명맥을 이어 나가겠다는 하나의 신념이다"라고 표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미약하나마 우리 학교 총학생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6월 민주항쟁의 물꼬를 텃던 학생운동의 정신을 되찾기 위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한총련의 개혁을 위해서, 그외에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남이 기자)

취업비상 예외 없다...대기업 공문 반으로 줄어

열린 모의면접, 합동설명회, 채용한마당 등 학교차원 대책 준비중

올해 들어 극도로 심각해 진 취업난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 취업정보실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96년과 97년의 구인회회 건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반공문수나 총공문수는 작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나 추천공문수와 공채공문수를 살펴보면 그 수가 50% 가까이 줄

어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몇 해째 계속되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불황이 낳은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자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취업정보실은 하반기 취업 준비 학생들을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먼저 '열린 모의면접'을 오는 9월 실시할 예정이다. 이 날 오후 1시부터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될 이번 행사에서는 개인면접, 프리젠테이션, 집단면접, 집단토의식 면

접, 강평회 등이 LG 그룹 유진봉 인사팀장을 비롯, 우리학교 출신 기업 임원들에 의해 실시될 예정이며, 면접 시작전인 오전 10시에는 직무능력검사를 시행한다.

또한 다음 날인 10월 오전 10시 크라운관에서는 한국 경제신문의 후원으로 대우그룹, 현대그룹, LG 그룹, 선경그룹, 한화그룹, 한라그룹 등의 주요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밖에도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치러지게 될 '97 채용 한마당'에서

는 20개 주요기업이 참가해 직접 채용의 시간을 갖는다. 서울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리게 될 이번 행사는 한국대학신문이 후원하며 오전 10시부터 6시간 동안 실시한다.

대학주보 뉴스서비스

천안양: GO KHU 31
하이텍: GO KHU 10
유니텍: GO KHU
인터넷:
<http://news.kyunghee.ac.kr>

종합강의동 착공

오는 99년 2학기 사용 가능
우리학교 교육연구 시설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될 서울캠퍼스의 종합강의동 공사가 지난 4일 열린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 날 기공식은 조영식 학원장, 조정원 총장, 정동성 총동문회장, 나산그룹 안병균 회장을 비롯한 학내의 각계인사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정운일 사무처장의 건설계획보고 이후 있는 기념사 순서에서 조총장은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종합강의동 시공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며 "종합강의동 건설과 더불어 현재 운동장에 들어서게 될 대형 주차장 건설 요청을 받아들여 준 나산그룹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7면)

한편 수원캠퍼스 멀티미디어 교육관 신축공사 기공식이 지난 22일에, 아·태 국제 대학원은 지난 6월 착공한 바 있다.

MaCawley 교수 방한
국제교육원서 특강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는 교수로 유명한 James D. MaCawley교수가 오는 9월 우리학교 국제교육원을 방문해 특강을 한다.

특강의 주제는 "Discontinuous and other 'non-standard' kinds of constituent structure"이고 이 교수는 우리학교 뿐 아니라 '세종대왕 탄신 6백'을 세종대왕상 시상식 및 국제학술회의와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현대문화학회에서도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하게 된다.

MaCawley교수는 현재 시카고대학언어학과와 국동아시아학에서 Andrew MacLeish Distinguished Service 교수로 재직중에 있다.

사 고

46기 수습기자 모집

평가편집회의, 열반음, 일변지의 오빠와 양남지, 김요일 ALL NIGHT, 새벽 1시에 먹는 순대와 떡볶이, 원고마감, 토요일 판, 홀트러진 편집실, 밤새 쓴 기사가 신문에 나왔을 때의 가슴 벅찬, 기사 아래에 자랑스럽게 빛나는 내 이름, 내가 힘들때 내곁에 있어주는 동기와 선배.

힘든 순간마다 잠깐씩 피아나는 보람으로 대학주보 기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소중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사실 대학주보기자가 되기란 어렵지 않은일이지만 대학주보 기자로 남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집인사

서울 캠퍼스 오는 23일 오후 5시30분까지
수원 캠퍼스 오는 24일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방법

간단한 필기시험과 면접

원서접수 및 교부방법

모집일까지 양 캠퍼스 편집실

문의

서울 캠퍼스 02)961-0095
수원 캠퍼스 0331)280-2056

9/8/1/1/1



▲지난 4일 열린 종합강의동 기공식 시삽식 모습. 우측 사진은 종합강의동 조감도

디지털 영상랩 개설

국내 최초 영상 연구소

국내 최초의 영상연구소인 '디지털 영상랩'이 지난 1일 정경대 4층에 들어섰다.

2년 전부터 신문방송학과 내부에서 계획한 이 연구소는 언론정보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정일형(언론정보대학원출), 나기용(언론정보대학원 4기), 정동희(언론정보대학원 4기)군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이 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영상 이론 연구, 영상 작품 제작 및 대회

출품 등을 하는 한편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상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교육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로 등록금은 3백만원이며 고졸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 연구소는 17대의 매킨토시 및 최고가의 영상장비를 갖추고 현재 97년 2학기 과정 15명을 교육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 961-0095, 963-5849 FAX 962-7718
발행편집인 주 편집인	조정원 정재인
수원캠퍼스(우: 449-701) 경기 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 741-5701(교학: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수원캠퍼스(우: 449-701) 경기 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 ☎ 741-5701(교학: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카오스

대학이라는 자유의 전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혼란은 매우 크다. 일정한 틀 속에서 항상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대학의 자유로움은 혼란을 주고도 남을만한 것이다.

지난 한 주동안 실시되었던 수강신청확인 기간에 학내의 전산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의 수강신청학생들이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몇 시간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동안 줄을 서는 고충을 왜 매학기초마다 반복하는 것일까. 아마도 그 이유는 1학년때 형성되었던 수강신청에 대한 공포심의 발로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학습의 되풀이 속에서 학과과는 내년부터 수강신청 확인기간을 폐지할것을 발표했다.

폐강과목에 대한 확인,정정등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내린 결론인 것이다.

그러나 수강신청에 대한 학생들의 공포심을 개선하지 않은 학교측의 이러한 행정은 수강신청 확인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를 보완하려는 학생들의 혼란만을 가중 시킬것으로 예상된다.

잘못된 수강신청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학교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저 형식적인 강의 요람이 아닌 실질적인 정보가 담긴 책자들의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학생자신이 수강하고자하는 강의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 자세정립이다.

이 두가지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거듭되는 수강정정으로 인한 비효율적 학사운영과 수강신청 전쟁을 치루는 학생들의 고충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김용운 기자)

지/면/안/내

2면 - 뒤로 가는 교수제임용

개장논의

3면 - 한국청소녀의 하위문화

4면 - 해외탐방기

(미국·유럽·일본)

5면 - 한총련 탈퇴요구에

대한 각대학 입장

8면 - 고교백일장 당선작

9면 - 인물포커스

'한국어교정 재외 한국

인물 만나'

10~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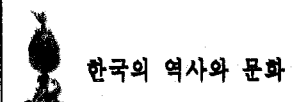
Free Style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20세이상
남자라면 누구나 가능한,
공인된 킬러들의 세계
그곳에 가고싶다(?)

추석연휴로 한주 휴간

최종등록 12일 마감

경희대학교 출판국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용근

토박심음의 한국사 종합적 입문교재

본서는 사학사 이하 시대구분
론을 비롯하여 단군신화,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역대 국경확정
문제 등 논쟁적 주제들을 다루면
서 아울러 불교사상과 문화재 등에 많은 노력이 돋보
이는 책이다.

349면/값15,000

결혼과 가족

-유영주 외 공저

건강한 가족관계를 탐색해 보는 입문서

각 대학 교양교재 베스트셀러

수년간 가족관계학을 공부해온
필자들의 노력으로 엮여진 이 책
은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실
제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이자 친
밀한 안내서이다.

450면/값12,000